

[12] 장 서

충남 온양에서 약 16km 들어가면 인주면 문방리에 "장장군묘"라는 큰 무덤이 있다.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일컫는 우리나라에 공자가 일찌기 살고싶다는 뜻을 밝힌 뒤로부터 여느나라와는 달리 중국 인사들이 기회있는대로 많이 동쪽으로 건너와서 장착하게 되었는데 송나라때 금좌광록대부 신경위 대장군 장공서가 그중의 한 분이였다.

공은 한참 날뛰고 있는 금호의 난을 피해서 고려로 내려와 공충도 아산에 자리를 잡고 살았으므로 아산군이라는 봉작까지 받았었다. 동으로 나온 공의 자취가 기로된 것으로는 고려사등 몇가지 서적에 실려있으나 상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또 대대로 물려오는 장씨의 세보중에서도 다만 무덤이 본군 서면 영인산 문지리 뒷산에 있는데 무덤앞에서는 끊임없이 물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그 맑은 물 가운데 커다란 바위가 서있으며 봉분 또한 여느 무덤보다 컸으므로 '장릉'이라 일컬었다는 기록만 있다. 그러나 이 묘소는 중세때에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생의 연애마저 알 수 없게 된다.

지난 임신년(1932년)에야 비로소 후손들이 묘소가 있었던 장소를 찾아 다시 무덤을 수축할 것을 의논하고 아산에 이르니 이미 그 장릉은 동네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 올 뿐 그위에는 신당이 세워져 있어서 '장장군 신사'라 불리워 지고 있었다.

그 뒤 몇년이 지난 정미년에 그 후손이 돈을 모아 그 무덤 주위의 산과 밭을 사고 신당을 헐어버리고 무덤을 다시 쌓아 올렸다.

동네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옛적에 이미 그 묘비가 있었던 것을 그 마을 사람들이 사적을 인멸하기 위해 바다 한 가운데에 던져버렸다고 전한다.

중국에서 건너와 아산땅에 자리잡고 아름다운 강산으로 꾸미고 훌륭한 후손을 기른 아산 장씨의 시조인 장서를 찬양한 이가원 선생의 시조가 있다.

조국을 버리시고 동으로 오신뜻은

오랑캐 창궐하니 차마보지 못할지라

나라에 봉작받고 씨족에는 시조시라

무덤이 신당되고 신당이 무덤되니

홍폐의 느낌이야 없을줄 있으랴만

어진 후에 예 있으니 길이 수호 하오리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이처럼 동경하여 먼 중국으로부터 내려와 뿌리를 내린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좋은 곳인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국민으로써 금지와 자부심을 느껴 새삼 우리땅의 돌맹이 하나 풀 한포기가 얼마나 정겹게 보이는지 모른다.

나라는 망해도 역사는 영원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는 오늘날 허리가 잘려 두동강이가 나 버렸지만 찬란하고 유구한 역사만큼은 다른 나라에 비해 오히려 훌륭하게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 나라의 얼굴인 역사를 올바르게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옛것을 익히고 나아가서는 새것을 안다는 온고지신으로 이와 같은 일화를 국민으로하여금 조국에 대한 애국심과 자신감을 갖고 모든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이것이 바로 더 나은 역사를 향한 힘찬 도약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